



목 차

Halloween at SJA

SJA 제주의 할로윈

Sports Season Arrival

스포츠 시즌 개막

Academic Spotlight

학업 스포트라이트

Student Artist

Spotlight

학생아티스트 스포트라이트

2020년 첫 클래식콘서트

SJA 창립 교원이며 현재 클래식밴드를 이끌고 있는 Mr. Stephen Arrastia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12월 3일 클래식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원수 제한 문제로 인해 객석을 관객으로 채울 수는 없었지만, 누구나 가정에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녹화 중계**로 콘서트를 진행 했습니다.

밴드가 9월부터 음악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 Mr. Arrastia 선생님은 “작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음악 연습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 준비를 끝마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콘서트가 소중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밴드와 현악기 그룹은 한국 전통 랩소디, Arabian Dances, Purple Haze, 그리고 다양한 영화 사운드트랙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 등 7가지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학생들은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고 극복하며 대망의 공연을 위해 즐겁게 연습 했으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콘서트에 대해 SJA 공동체의 모두가 학생 뮤지션들을 매우 자랑스럽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번역: 박민준(G9), 김태준(G10) 검수: 김태준(G10)

HALLOWEEN AT SJA

하이스쿨 아침 어셈블리에서 각자의 할로윈 복장을 하고 최고의 의상을 입은 학을 뽑는 대회를 열어, 즐거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게는 힘든 결정이었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이채영 학생이 우승자로 선발되었습니다.

번역: 이재홍(G10)

검수: 김준(G12), 허윤서(G12)



최종 우승후보를 소개
합니다! ...



...그리고 최종순위를 결
정중인 심사위원단의 모
습입니다.



스포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작성 : Hunter Cooper
편집 : Ms. Lyons, Ms. Carriveau

지난 10월 30일, SJA Jeju의 첫번째 스포츠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즐거움이 가득한 친선경기에는 학생, 선생님, 학교 공동체가족들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학교 간 친선경기 KISAK을 준비하기 위해, 배구경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한 팀을 이루며, 교실 밖에서 끈끈한 정을 쌓았습니다. 또한, 각 팀은 팀을 대표하는 의상과 색을 고르면서 팀워크를 배양했습니다. 웃음과 응원에 힘입어, 선수들은 물론, 관객, 스코어키퍼, 경기장을 뛰놀던 아이들까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즈음, 여학생팀인 '네온 닌자'와 남학생팀인 '레드 데빌스'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모든 SJA 커뮤니티는 두 팀을 응원하였으며, 이 날은 모두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번역: 허윤서(G12)



ACADEMIC SPOTLIGHT:

MS. C의 헝거 게임

인터뷰: **Ms. Brittany Lyons** 선생님

Ms. Carriveau 선생님은 SJA 제주에서 9학년 영어(English 9)와 그래픽 디자인, 시니어 캡스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가 수업의 핵심이지만 재미와 비판적 사고 역시 빠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수업 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9학년 영어수업은 소설 헝거게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헝거게임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위해 6주간의 반 대항 경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적 성취와 기발한 "퀘스트," 그리고 수업중에 진행된 능력 컨테스트를 통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승팀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한 영광과 함께 퀘사디아 파티를 만끽하였습니다! 9학년 영어시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9학년 헝거게임 웹사이트([Grade 9 Hunger Games website](#))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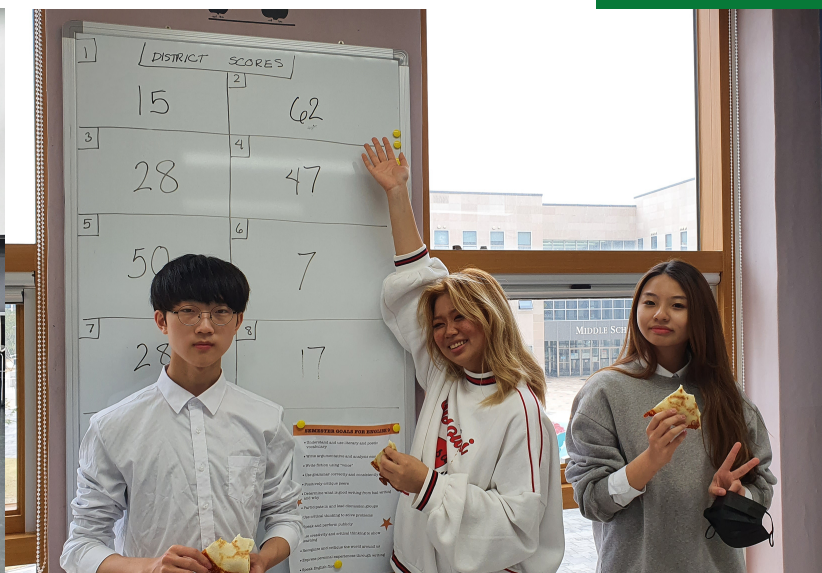
언제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 먹으셨나요?

저는 어릴적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친구들을 모아 놓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퀴즈를 내는 것을 좋아했죠. 아마 그때 제 친구들은 저만큼 즐거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하.

번역: 김준(G12) 검수: 김준(G12)

좌: *Luke Sun, Ain Lee* "헝거게임 경기중"

우: 학기 최종우승자가 자신들의 점수를 가리키며 기뻐하는 모습, *loyd Ahn, Michelle Lee, Grace An*



영감을 준 선생님이나 멘토가 있었나요? 어떤 분이었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선생님은 2학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저희를 1년 동안 현장 체험학습을 25번 데려가셨어요. 이제와 생각하면 그 선생님은 분명히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선생님이 좋았어요.

학생으로 인해서 놀라거나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독립된 프로젝트에서 보여주는 창의성에 끊임없이 놀라요. 저는 선생님들이 배우는 방식을 더 적게 정의할수록, 더 많은 배움이 교실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가르침은 트램폴린에 오르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일단 트램폴린에 오르면 학생들은 그 개념에 대해 가지고 놀 수 있게 되고, 그 후엔 마치 트램폴린 위에서 지식의 3중 백플립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겠죠.

학생들에게 얻는 배움이 있다면?

학생들은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중요성을 알려줬어요. 또한 교실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선생님인 저 자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학생들이 Carriveau선생님께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밖에 더 생각해보자면 학습 조직력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읽고 쓰고 분석하는 능력도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관리능력은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지요.

번역: 이민규(G10), 정현수(G9) 검수: 이민규(G10)



STUDENT ARTIST SPOTLIGHT

AIDEN BRUNNEMAN: 조각



Aiden Brunneman (12학년)

지난해 Mr. Toscano 전 총교장 선생님은 학교 중앙의 뜰에 미술작품이 한 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Ms. Emerson 선생님의 아트 클래스 중 조각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큰 뿔을 가진 양의 디자인을 제작의뢰했습니다. 제출된 많은 초안들 중 선발된 단 하나의 작품이 Aiden Brunneman 학생이 종이접기 창작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디자인입니다. Aiden의 디자인은 SJA 하이스쿨 Steam 룸에 있던 3D 프린터기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Aiden 학생이 오랫동안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도구입니다.

]Aiden의 미니 조각상이 최종 선정된 이후, 학교측은 제주 지역 예술가에게 의뢰하여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미니 모델을 지금 학교 중앙 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빛 조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Aiden은 자신의 초안이 선정된 것에 큰 영광과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아트 클래스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훌륭한 초안들 제출했음에도 제 디자인이 뽑힌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디자인이 실제로 사용된 것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예빈 학생과의 인터뷰